

르노삼성, 최장파업의 유산... 1200억 손실, 판매 20% ↓

임단협 14차 교섭에도 평행선
노조 30여회 '최장 파업'에
차량 6400여대 생산 차질
로그 후속물량 배정 불확실

르노삼성자동차의 임금 및 단체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노조의 부분파업도 이어지고 있다. 노사간 '줄다리기'로 손실액은 불고 있는 가운데 위탁생산 중인 닛산 로그의 후속 물량을 배정받지 못하고 현재로서는 불투명해지고 있다.

17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르노삼성자동차 노조는 지난해 10월 이후 30여회 파업을 진행하며 최장 파업 기록을 쓰고 있다. 해를 넘겨 2월이 되었지만 임단협 타결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노사는 지난 12일 제 14차 교섭을 가졌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으며 14일 임단협 제15차 교섭을 갖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실패했다. 지난 15일에는 13일에 이어 부분파업을 이어갔다. 노조는 현재 기본급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에서 근로자들이 QM6를 생산하고 있다.



10만667원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기본급 대신 최대 1400만원의 보상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있다. 르노삼성은 노조의 부분파업 이후 6400여대의 차량 생산에 차질을 빚었다. 손실액은 1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르노 본사에서 배정하는 '닛산 로그'

위탁생산 물량의 계약이 올해 9월 종료된다는 점도 문제점 중 하나다. 이 차종의 경우 전체 50%에 가까운 물량이 부산공장에서 만들어지는데 파업이 길어질수록 후속 물량을 배정받기 힘들어진다.

업계에 따르면 부산공장의 인건비가 크게 오를 상태라는 게 약점이다. 부산공장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매년 2~3%씩 오

르는 추세로 2017년 기준 평균 7800만원으로 닛산 로그 물량을 처음 배정받았던 2014년보다 20% 상승했다. 르노-닛산 그룹 내 46개 공장 가운데 세 번째로 평균임금이 높다.

현재 르노삼성 부산공장은 단일 생산 라인에서 7종의 차량을 생산하고 있어 그와 일부 노후 차종의 생산을 중단하더

라도 나머지 차종의 생산량을 늘리면 가동률 하락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르노삼성의 지난해 내수 판매는 5174대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9.2% 급감하는 등 모델 노후화로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QM6는 가솔린 모델의 추가로 작년 동월 대비 31.6% 늘었지만, SM6는 37.4% 급감했다.

회사 측은 SM6와 QM6의 내수판매가 부진함에 따라 하반기에 생산성을 강화한 모델을 출시할 방침이다.

한편 로스 모저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최근 부산공장 직원들에게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글로벌 경쟁에서 신뢰를 잃게 되면 로그 후속 물량 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우려를 표명하며 파업 종단을 촉구한 바 있다.

르노삼성자동차관계자는 "15차 교섭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라며 "현재 노조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삼성전자, 공기청정기 큐브 4개 컬러 추가

삼성전자는 오는 25일 4가지 색상을 새로 도입한 큐브 컬러에디션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프라임 핑크 ▲피치 오렌지 ▲세이지 블루 ▲콰이어트 그레이 등이다. 이번에 도입한 컬러는 미세한 가루 입자를 제품 표면에 도포해 색을 입히는 분체도장 방식을 사용했다. 발색과 내구성이 높고 친환경적이기까지 하다. 2개 이상 색을 섞어 사용해 더 세련되고 깊이 있는 질감도 구현했다.

삼성전자 프리미엄 공기청정기 큐브가 봄을 앞두고 상큼한 컬러를 갈아입었

/삼성전자

이스타항공, 운항지연 등 악재 황금노선 운수권 확보 난기류

푸꾸옥행 취항 첫날 7시간 지연
나짱→인천공항행도 3시간 지연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업체 중 올해 상장을 준비중인 이스타항공이 연초부터 흔들리고 있다. 특히 최근 운항 항공기 문제로 운항이 지연되면서 공을 들이고 있는 한국 인천~몽골 울란바토르 노선 운수권 확보에도 먹구름이 겹쳤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7시 40분 인천에서 베트남 푸꾸옥으로 가려던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내비게이션 문제 등으로 출발이 7시간 지연됐다. 해당 항공기는 16일 오전 2시 35분에야 인천 공항을 출발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내린 눈으로 디아이싱 작업에 1시간 이상 소요됐다"면서 "또 내비게이션에 문제가 생겨 이를 업데이트하느라 시간이 걸린데다가 근무시간 초과가 우려되는 승무원도 교체해야 해 출발이 늦어졌다"고 전했다.

이스타항공의 인천~푸꾸옥 노선의 첫 취항날 출발이 지연되면서 승객 176명이 늦은 밤 공항에서 대기하며 불편을 겪었다. 이스타항공측은 대기 승객들에게 사과하고 식사쿠폰과 담요를 지급했다. 이

스타항공의 지연사고는 이번만이 아니다. 한국시간으로 16일 새벽 3시 반 베트남 나짱에서 인천공항으로 출발 예정이었던 항공기도 3시간이 지연돼 새벽 6시 20분쯤 나짱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승객들은 이스타항공이 완벽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노선 예약을 받아 지연 사태가 발생했다며 항의했다.

이스타항공은 연초부터 운항 지연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황금노선'으로 불리는 한국 인천~몽골 울란바토르 노선 운수권을 확보에도 제동이 걸릴 것을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올해부터 항공산업 제도 개선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달 말 몽골과 싱가포르 노선 등 신규·확대 노선의 운수권 배분 결정을 준비하고 있다. 국토부는 항공교통 심의위원회가 정한 각종 지표를 평가해 높은 점수를 얻은 곳에 운수권을 배분할 방침이다.

만약 이스타항공이 몽골, 싱가포르 노선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중거리 노선 확대 등을 통한 수익성 개선도 어렵게 된다. 결국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가 추진중인 상장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양성운 기자

편드라이빙 '벨로스터N'... 30대 환호성

현대차, 구매자 설문조사

평균연령 33.7세... 車 경험 많아
구매시 감성·성능 등 중점 살펴

현대자동차의 고성능 모델 '벨로스터 N'이 편드라이빙을 즐기는 젊은 30대 고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현대차에 따르면 최근 벨로스터 N 출고 고객 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구매자의 평균 연령은 33.7세였다. 연령별로도 30대가 59%로 가장 많았다. 짜릿한 감각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고성능 모델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 벨로스터 N 구매 고객들은 차량에 대한 경험이 많은 편이었다. 벨로스터 N 이전에 차량을 4대 이상 구매한 비율이 51%에 달했으며, 생애 첫차로 벨로스터 N을 구매한 비율은 7%에 불과했다.

특히 벨로스터 N 차주들은 ▲자동차 동호회에 가입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거나 (89%) ▲주 1회 이상 자동차에 대해 이야기(89%) ▲단순히 운전 즐긴다



현대차 벨로스터 N.

(70%)는 답변을 한 비율이 높았다. 평범한 고객과 구분되는 마니아적 성향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파급력이 높은 자동차 고관여층인 셈이다.

자동차 구매 시 주행감성, 핸들링 및 코너링, 엔진 성능 등 주행 성능 관련 요소를 중점적으로 살피는 성향도 보였다. 통상적으로 자동차를 구매할 때 가격이나 실내외 디자인, 편의성에 무게를 두는 모습과는 차이가 있었다.

벨로스터 N을 운용하는 방식에서도 일반 시내 외출 용도보다는 기분 전환 드라이브(87%), 서킷 등 고속주행(73%), 취미

(70%) 등으로 차이가 있었다. 설문대상 차주 가운데 실제 서킷 경험이 있는 운전자도 87%에 달했다.

벨로스터 N의 비교 대상 차량으로는 메르세데스-AMG A45(12%), 도요타 86(8%), BMW M2(6%) 등 후륜구동 스포츠 카들을 꼽았다.

설문 결과 벨로스터 N 차주들의 구입 목적은 고성능 라인업 N의 철학인 '운전의 재미'와 맞닿아 있다는 게 현대차의 설명이다. 벨로스터 N은 지난해 6월 출시 이후 지난달까지 1349대가 판매됐다.

/양성운 기자 ysw@

KT, MVI와 亞·중동서 AI호텔 사업 추진

음성 AI '기가지니' 플랫폼 연동 등
전 세계 호텔 대상 사업 개발 MOU

KT가 아시아와 중동에 인공지능(AI) 호텔 사업을 추진한다.

KT는 지난 15일 홍콩의 아시아·중동 인터넷TV(IPTV) 솔루션과 서비스 제공사인 MVI와 아시아 및 중동에 있는 호텔에 AI 서비스 도입 및 사업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MVI는 IPTV에 호텔 전산시스템과 연동한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 또 홍콩, 싱가포르, 수단 등 아시아 18개국에 있는 주요 글로벌 호텔 체인의 6만개 이상 객실에 IPTV 플랫폼, 콘텐츠, 서비스 등을 제공



KT 글로벌사업개발 본부장 김영우 상무(오른쪽)와 MVI CEO 양계일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KT

리모컨 제어 기반 호텔 IPTV 플랫폼과 KT가 보유한 음성 AI 플랫폼 '기가지니 호텔' 플랫폼을 연동시켜 전 세계 호텔을 대상으로 공동 사업을 개발한다. 또 지속적인 기술 개선을 위한 R&D 협력을 추진한다.

양사는 글로벌 호텔 대상 AI 기술 기반 룸 자동화, 로봇 어메니티 서비스, 호텔형 한류 콘텐츠 공급 등에서 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상반기 내 서비스를 개발해 시범 적용 후 연내 상용화한다.

한편, KT는 지난해 7월 국내 최초로 노보텔 엠베서더 동대문 호텔&레지던스를 시작으로 조선호텔의 레스케이프, 그랜드 엠베서더 풀만호텔 등과 협력해 AI 호텔을 선보였다.

/김나연 기자 silkni@

하고 있다.

KT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MVI의